

돼지의 제왕절개 수술

최 찬 영*

현재 돼지의 제왕절개 수술은 몇군데의 기업 양돈장에서 SPF돈(특정 병원체 부재돈)을 생산하기 위하여 무균실에서 사육하고 무균실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임상수의사인 나로서는 1978년 가축병원을 개업한 이후 줄곧 대동물 임상만을 주로 하여 왔으나 가끔 지역내 양돈 농가로부터 돼지에 대한 진료 요청도 있었다. 그 대부분이 모돈의 산후 질병이나 한군에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질병과 하리 또는 전염병 등이며 때때로 난산에 대한 왕진요청도 있었다. 요즘은 돼지 가격의 불안정과 자가치료 수준의 향상으로 그나마도 왕진 요청이 뜸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일부 기업 양돈장과 전업규모의 양돈장을 제외한 양돈농가의 질병상담과 치료에서 우리 임상수의사의 역할은 크다고 본다. 또한 수의사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우리 임상수의사들의 자질향상과 기술연마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돼지의 제왕절개 수술은 그동안 경제성의 문제와 마취와 보정 등에 문제가 있어 솔직히 나 자신도 꺼리는 수술의 하나였는데 임상 case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그동안 임상을 하면서 돼지의 난산 case에서 대부분은 조산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손이나 가늘은 밧줄 등을 이

* 최가축병원

용하여 대부분 처리가 되었으나 초산돈으로 골반이 아주 작다거나 태아가 클 경우 등에서 여러차례 난산처지에 실패한 경험도 있었다. 이럴 때마다 원장의 체면을 세우고 믿음직스러운 수의사像을 구현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생각하였다.

젖소인 경우는 서슴없이 수술을 하곤 했지만 돼지는 다른 수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도 보지 못했고 해보질 않았기에 주저주저하다가 도태의 판정을 내리곤 했다. 그때의 심정은 임상수의사라면 누구나 비참하고 쓸쓸한 마음을 여러번 겪었으리라 믿으며 나에게는 언젠가는 풀어야 할 숙제이므로 이번에는 큰 마음먹고 해보기로 했다.

1. 농장현황

가. 사육두수 : 약 2,500두 규모의 고양군 소재 종돈장

나. 축종 및 모돈상태 : 듀록, 초산돈으로 종돈 검정소에서 고가에 구입한 모돈으로 전날 저녁 5시경부터 진통이 시작되었으나 분만을 하지 못해 관리인이 손으로 한마리 꺼내고 옥시토신제제 주사(옥시벨 3cc IM)하였으나 분만을 못해 손으로 모두 5마리를 인출. 다음날 아침 9時경 연락을 받고 농장에 가보니 진통이 없고 외음부는 심하게 충혈되어 있고 어미돼지는 호흡도 괜찮고 걸음으로 보기엔 이상이 없는 듯

누워서 자돈에게 젖을 빠리고 있었다. 외음부를 통해 검사결과 산도가 부종이 심하며 손이 잘 들어가지 않는 골반이 새끼에 비해 작고 자돈은 이미 턱뼈가 부러진 상태로 제왕절개 이외에는 도태의 방법 뿐이 없었다. 축주와 상의하여 수술하기로 함.

2. 마취 및 보정

돼지의 전신마취는 포수크로탈 15~40g과 황산마그네슘 10~20g을 증류수 100~200ml에 용해하여 정맥주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는 펜토바비탈을 체중 5~7kg 당 1ml 투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품도 구하기가 힘들다. 왕진 가방에 있는 것이란 진정제인 콤포렐 밖에 없어 20cc를 근육주사하고 항생제는 포르테실린 콤포(PC와 SM합제)를 2병 증류수에 용해하여 근육주사하였다. 절개 부위는 좌측 견부를 택하여 마지막 늑골과 골반골 사이의 털을 면도기로 깎고 비눗물로 잘 닦아 낸 후 강옥도로 수술부위를 소독하였다. 진정제 주사후 20~30분뒤에 앞다리와 뒷다리를 밧줄로 묶어 각각 분만틀 파이프에 고정하고 머리부분도 윗턱에 밧줄을 매어 파이프에 보정하였다. 수술 도중 가끔 움직였으나 수술은 할 수 있었다.

3. 수술 및 후처치

가. 절개 및 태아인출 : 견부 수직 절개로 피부를 25cm 정도 절개하니 두꺼운 피하 지방층이 나왔다. 모돈이 과비되어 지방층이 3~4cm는 되는 것 같았다. 한참을 절개하니 복근과 복막사이에도 지방이 있었고 복막을 절개 후 뼈져나오는 장을 한손으로 막고 한손으로 자궁을 축지하니 태아도 축지되었다. 자궁을 가급적 절개창으로 유도하여 자궁벽을 절개하고 태아를 인출하였다. 이때 복강내로 양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을 하였다. 복막을 절개하니 약간의 복수가 나왔는데 소의 복수와는 달리 교양성이 많아 손을 집어 넣으니 아교처럼 손에 달라붙

는 교양물질이 있었다. 태아는 외음부를 통해 축지하였던 턱뼈가 부러진 늑이었다. 자돈의 생시 체중은 보통 약 1.1~1.3kg 정도인데 이번은 1.7~1.8kg은 되는 것 같았다. 자궁을 검사하니 사산태아가 또 한마리 있었다. 2~3회 자궁을 안과 밖으로 태아가 남아 있는 검사를 한 다음 봉합을 하였다. 자궁을 봉합한 후 복막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염수에 PC 800만단위, SM 5g을 희석하여 복강내에 주입하였다.

나. 봉합 : 자궁에서 태를 제거해내고 자궁은 chromic 腸絲로 이중 탬버트 봉합을 하여 집어 넣고 복막과 복근을 연속 봉합하였으며 피하지방도 같이 봉합하였으나 지방은 흐들흐들하며 봉합이 잘 되지를 않았다. 피부는 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9號 실크絲로 21번 봉합을 하였다.

다. 수술 후 처치 : 수술이 끝난 후 강옥도와 핑크아이 스프레이로 수술부위를 소독해 주고 5% 포도당 500ml에 강심 이노제, 수용성 비타민제, 대사 촉진제 등을 혼합하여 정맥 주사해 주고 자궁의 수축을 도와주기 위해 옥시토신을 4cc 근육주사하였다. 모돈 관리인에게 수술 부위에 1일 2회이상 핑크아이 스프레이를 뿌려주도록 지시하고 처음 3일간은 포르테실린 콤포를 해열제 10ml에 용해하여 1일 2회 근육주사하고 그후 3일간은 1일 1회 근육주사하도록 했다. 수술한 날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나 2일째부터는 물과 사료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수술 10일 후에 피부 봉합 한것을 발사했고 수술후 현재까지 모돈은 쾌유되었고 자돈들은 잘 자라고 있다.

4. 결 론

해보지 않았던 돼지의 제왕절개 수술이라 처음엔 겁도 나고 근심도 되었지만 수술을 성공리에 끝마치니 우리 임상 수의사의 직업이 밤낮없이 힘들고 고된 직업이지만 귀한 生命을 살렸다는 기쁨과 보람이 있었고 비싼 모돈을 살렸다고 흐뭇해하는 축주와 신기와 경탄의 눈

초리로 수의사의 실력을 다시 보는듯한 관리인들의 눈길에서 또 나자신의 가슴 뿌듯한 성취욕에서 수의사로서 보람을 느낀 하루였다. 보잘 것 없는 글이지만 동료 임상수의사 여러분께

다소라도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되었으면 하고 다 함께 수의사의 권익 신장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 하시고 고귀한 경험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삶의 보람도 함께 나누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축질병의 첨단요법.....비특이성 면역촉진제 수입완제품

울트라콘 주사

ULTRA-CORN inj.

STIMULANT OF NON-SPECIFIC DEFENCE MECHANISM IN THE BODY
가축의 자체방어력을 높여줌으로써 화학요법의 남용으로 인한 약해와 경비를 줄입니다.

ULTRA-CORN의 면역학적 작용기전

- ※ 망상내피계의 식균작용 활성화
- ※ 항바이러스 효과(인터페론 증가)
- ※ 항체생산촉진

ULTRA-CORN의 임상적 응용

- ※ 바이러스성 감염증의 보조치료
- ※ 기관지폐염 및 설사증의 치료효과(식욕회복 및 임상증세 완화)
- ※ 만성연조직감염증(유방염, 관절염, 폐염 등)의 보조치료효과
- ※ 어미가축 및 새끼를 위한 처치.....
 - ◎ 신생가축 : 임신말기의 어미가축에 주사함으로써 새끼의 패혈증 및 설사병을 예방시킨다.
 - ◎ 후산정체 : ▲후산정체를 개선할 수 없으나 감염증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우유생산량을 증가시킨다.
- ※ 개디스템마 및 파보바이러스병 보조치료
- ※ 백신접종시 면역효과 증진

virbac

동물약품수입·판매원



조양축산상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릉동 670-11

☎ 972-3572